

피부질환자의 니트웨어 선호도에 관한 연구

공진희 · 권영아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Knitwears of Dermatitis Patients

Jin-Hee Kong and Young-Ah Kwon
Div.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dermatitis patients' preferred garment performance and their sentiment in spring/summer knitwears. SPSS 12.0 program was used for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Duncan test. The result was as follows; First, in garments, patients required 'health·hygiene', 'practicality in use·care', 'skin contact' and 'easy movement'. Especially, 'skin contact' is an important property to be considered in patients' clothes. Second, in garment sensitivity, patients importantly considered 'modesty', 'feminine', 'boldness', 'decency', 'easy movement', 'youth', and 'simplicity'. Third, patients preferred simple and modest plain knitwear in light color with thin and soft fabric such as plain knit. And especially, dot pattern in knitwears should be avoided. Fourth, the preferred style of patients was that 'appropriately fit with suitable ease.' They also preferred 'front closed,' ; 'boat neckline' and 'V neckline'; 'raglan sleeve' and 'set-in sleeve'. For hem trim, they preferred 'rib'. Male preferred simple and plain style with round collar of 'tubular trim' and 'rib trim', while female preferred sophisticated and characteristic style with set-in sleeve.

Key words: dermatitis patient, knitwears, preference

1. 서 론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문화, 환경적 요인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하여 피부 질환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최철호, 외 1999; 홍성호, 2002).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년간 꾸준히 피부 질환자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단위의 통계 보고(김정원, 2003)와 피부질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등 여러 피부질환에 대한 정신 사회과학적 연구(김홍식, 1997), 치료 방법·효과(안봉균, 2004)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증상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다른 신체 질환에 비해 환자에게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질환으로 인식되는 것에 반해, 정신적으로는 안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피부질환의 경우 외모의 변화와 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정신적인 장애와 관련된다.

한편 현대인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은 의복에서도 기능화·고급화·전문화·다양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의복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니트웨어는 유연성, 신축성, 드레이프성과 같은 독특한 성능과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품목으로 패션시장의 중요한 위치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니트웨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니트웨어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부질환자는 건조와 자극 등에 민감하거나 피부병변의 노출을 기피할 수도 있으므로 피부 건강상태, 피부 질환 종류 및 부위 등 피부질환자의 특성에 따라 니트웨어에 요구되는 성능 및 선호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피부질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질환자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니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질환자의 성별, 피부건강 및 종류, 피부질환 종류에 따른 의복 요구성능의 차이를 검토한다.

둘째, 피부질환자의 성별, 피부건강 및 피부질환 종류에 따른 니트웨어 선호감성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피부질환자의 성별, 피부질환 종류에 따른 니트웨어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설계도는 Fig. 1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Young-Ah Kwon
Tel. +82-51-999-5063, Fax. +82-51-999-5736
E-mail: yakwon@sill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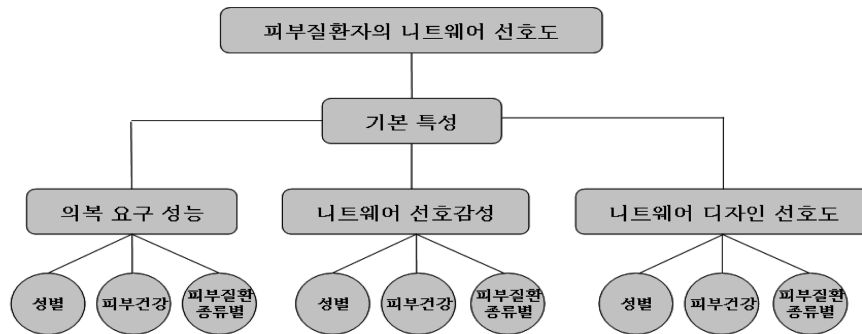


Fig. 1. 연구 설계도

2.1. 연구대상

설문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성인 피부질환자가 많이 찾는 피부과가 밀집한 부산 서면지역 · 서울 강남지역 피부과 외래 환자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06년 2월에 걸쳐 총 80부를 배부하여 이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59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피부질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빈도분석한 결과, 서울 및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21명 (35.6%), 여성 38명 (64.4%)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21세 미만(27.1%), 21세 이상 30세 미만(54.2%), 31세 이상 (18.6%)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여부별 분포는 미혼이 89.8%로 기혼의 10.2%에 비해 많았다. 월 평균 가정 수입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54.2%), 200만원 미만(40.7%), 500만원 이상 (5.1%)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67.8%)이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25.4%), 고등학교 졸업 (3.4%), 고등학교 재학(3.4%)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 (59.3%), 사무직(16.9%), 전문직(6.8%), 서비스직(6.8%), 가정주부(5.1%), 교사(5.1%)로 구성되었다.

2.2. 자료수집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와 선행연구 공진회 등(2007), 정수희(2005), 홍병숙 등 (2002)을 바탕으로 S/S 외출용 의복의 요구 성능에 대한 생각 (14문항), 니트웨어의 이미지 선호도 (26문항), 니트웨어에 대한 일반적 생각 (5문항), S/S 외출용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도 (18 문항), 피부건강에 관한 질문 (13문항),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10문항), 니트웨어 구입 시 불만 사항 및 개발 시 고려 사항에 관한 질문 (2문항)으로 나누어져 총 8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S 니트웨어에 국한한 이유는 피부질환자가 여름철 땀에 의한 피부장해로 니트 착용의 불만이 많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S/S 니트웨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구하기 위함이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3. 분석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피부건강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 피부질환자의 성별에 따른 피부건강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피부질환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피부건강에 대해서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6%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0.5%, 좋지 않다는 응답이 50.8%였다. 피부질환 조사대상자의 소유 피부질환으로 아토피 피부가 49.2%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이 22.0%, 기미 · 주근깨 20.3%, 기타 8.5%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의 경우 남성(61.9%)이 여성(42.1%)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드름의 경우에도 남성(33.3%)이 여성(15.8%)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미 · 주근깨 여성이 31.6%인 반면 남성의 경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피부질환 조사대상자가 클리닉을 찾은 이유로는 치료(50.8%)가 가장 많았고, 미용(25.4%), 건강(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클리닉을 찾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28.6%)이 여성(2.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미용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31.6%)이 남성(14.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부질환 발생 요인 중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 (23.7%)이 남성(57.1%)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질환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피부질환과 동반한 질환에 대한 응답으로 피부염(28.8%), 위 질환(25.4%)과 두드레기(16.9%), 비염(11.9%), 천식(10.2%), 신경계(5.1%), 간 질환(3.4%)등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동반질환 중 비염을 동반한 경우는 남성(23.8%)이 여성 (5.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위 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여

Table 1. 피부질환 조사대상자의 성별 피부건강 상태 (N=59)

피부건강	남			여			전체		
	N	성별의%	전체 %	N	성별의%	전체 %	N	%	
피부건강	좋지 않다	14	66.7	23.7	16	42.1	27.1	30	50.8
	보통	5	23.8	8.5	13	34.2	22.0	18	30.5
	좋다	2	9.5	3.4	9	23.7	15.3	11	18.6
	합계	21	100	35.6	38	100	64.4	59	100
소유 피부질환	기미·주근깨	-	-	-	12	31.6	20.3	12	20.3
	여드름	7	33.3	11.9	6	15.8	10.2	13	22.0
	아토피	13	61.9	22.0	16	42.1	27.1	29	49.2
	기타	1	4.8	1.7	4	10.5	6.8	5	8.5
	합계	21	100	35.6	38	100	64.4	59	100
피부질환 발생부위	얼굴	11	52.4	18.6	12	31.6	20.3	23	39.0
	전신피부	6	28.6	10.2	8	21.1	13.6	14	23.7
	팔·다리	1	4.8	1.7	6	15.8	10.2	7	11.9
	체간	2	9.5	3.4	1	2.6	1.7	3	5.1
	기타	1	4.8	1.7	11	28.9	18.6	12	20.3
	합계	21	35.6	35.6	38	100	64.4	59	100
클리닉 찾는 이유	건강	6	28.6	10.2	1	2.6	1.7	7	11.9
	미용	3	14.3	5.1	12	31.6	20.3	15	25.4
	치료	11	52.4	18.6	19	50.0	32.2	30	50.8
	기타	1	4.8	1.7	6	15.8	10.2	7	11.9
	합계	21	100	35.6	38	100	64.4	59	100
피부질환 발생 요인 (중복 응답)	스트레스	12	57.1	20.3	9	23.7	15.3	21	35.6
	공해 및 환경 변화	11	52.4	18.6	22	57.9	37.3	33	55.9
	한랭한 기후	1	4.8	1.7	1	2.6	1.7	2	3.4
	유전적 요인	-	-	0	4	10.5	6.8	4	6.8
	부적절한 치료방법	2	9.5	3.4	1	2.6	1.7	3	5.1
	지루피부염	1	4.8	1.7	2	5.3	3.4	3	5.1
	먼지 및 진드기	2	9.5	3.4	7	18.4	11.9	9	15.3
	호르몬 변화	2	9.5	3.4	3	7.9	5.1	5	8.5
동반질환 (중복 응답)	두드레기	4	19.0	6.8	6	15.8	10.2	10	16.9
	천식	3	14.3	5.1	3	7.9	5.1	6	10.2
	피부염	9	42.9	15.3	8	21.1	13.6	17	28.8
	비염	5	23.8	8.5	2	5.3	3.4	7	11.9
	신경계	-	-	-	3	7.9	5.1	3	5.1
	간	1	4.8	1.7	1	2.6	1.7	2	3.4
	위	2	9.5	3.4	13	34.2	22.0	15	25.4
선호하는 피부 관리법 (중복 응답)	보습제	7	66.7	23.7	19	50.0	32.2	26	44.1
	피부청결	12	57.1	20.3	19	50.0	32.2	31	52.5
	실내 온·습도 유지	2	9.5	3.4	3	7.9	5.1	5	8.5
	의복 소재 선택	1	4.8	1.7	5	13.2	8.5	6	10.2
	목욕 및 샤워 횟수 조절	4	19.0	6.8	4	10.5	6.8	8	13.6
	기타 생활환경 개선	1	4.8	1.7	6	15.8	10.2	7	11.9

성(34.2%)이 남성(9.5%)보다 높았다. 피부질환 조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피부 관리법으로 피부 청결이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보습제사용(44.1%), 목욕·샤워 횟수 조절 및 과도한 자극 억제(13.6%), 의복 소재의 선택(10.2%), 실내온도와 습도의 유지(8.5%), 기타 생활환경 개선(11.3%)등으로 나타나 피부 관리법으로 청결과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 소재의 선택 및 목욕, 환경 개선을 통해 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피부질환자의 니트웨어 선호도

Table 2는 피부질환자의 니트웨어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니트웨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비율(54.2%)이 선호하는 비율(45.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니트웨어를 선호하는 이유에서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27.1%), 활동적이기 때문에(15.3%),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3.4%)로 나타났다. 니트웨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부 자극(23.7%), 세탁 후 형태 변형(23.7%), 보풀발생(20.3%), 울이 늘어남(20.3%), 정전기 발생(10.2%), 색이 변함(1.7%)으로 나타났다. 홍병숙 등(2002)의 서울 수도권 거주자로 니트웨어 구매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니트웨어 구입 후에 '디자인 및 색상', '활동성 및 착용감', '소유 의복과의 조화', '품질' 등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보풀의 발생', '세탁 후 변형', '울 풀림',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등 관리상의 불편함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부질환자는 '피부자극'이 니트웨어를 선호하지 않는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피부자극이 되지 않는 니트웨어 소재 사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3. 피부질환자의 의복 요구 성능

Table 3은 피부질환자가 요구하는 의복성능에 관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5개로 분류되

며 총 분산의 72.1%를 설명한다.

요인 1은 '피부 유·수분 유지가 되는', '통기성이 좋은', '기온에 적합한', '자외선 차단이 되는'등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어 '건강·위생성'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21.2%를 설명하고 고유치는 4.17이며 신뢰도계수는 .77이다. 요인 2는 '구김이 가지 않는', '형태변형 방지가 되는', '땀 흡수가 잘 되는'등의 3개로 구성되어 '실용·관리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3.1%를 설명하고 고유치는 2.02이며, 신뢰도계수는 0.73이다. 요인 3은 '피부 결점을 감추는', '물세탁 가능한'의 2개로 '피부차단성'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3.1%를 설명하고 고유치는 1.51이며 신뢰도계수는 0.57이다. 요인 4는 '몸에 잘 맞는', '체형 결점 보완이 되는'의 2개로 '외관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2.4%이고, 고유치는 1.38이고 신뢰도계수는 0.53이다. 요인 5는 '피부 자극이 없는', '피부접촉감이 좋은', '움직이기 편한'의 3개로 구성되어 '피부접촉성'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2.2%를 설명하고, 고유치는 1.02, 신뢰도계수는 0.64이다.

Table 4는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요구 성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피부질환자용 S/S 니트웨어 요구 성능에서 '피부 자극이 없는'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4.3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피부 접촉감이 좋은', '피부 자극이 없는'의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50%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피부 접촉감이 좋은'(4.34점), '움직이기 편한'(4.19점), '몸에 잘 맞는'(4.03점)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체형 결점 보완이 되는'(3.97점), '통기성 좋은'(3.95점), '땀 흡수가 잘되는'(3.93점), '기온에 적합한'(3.85점), '피부 유·수분 유지가 되는'(3.85점), '물세탁이 가능한'(3.64점), '피부결점을 감추는'(3.81점), '자외선 차단이 되는'(3.76점), '형태 변형 방지가 되는'(3.73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화륜(2004)의 연구에서 세탁이나 사용 후 의복 형태의 변화 정도와 보푸라기 생

Table 2. 피부질환자의 니트웨어의 선호도 (N=59)

구 분	전체		
	N	%	
선호여부	선호한다	27	45.8
	선호하지 않는다	32	54.2
선호이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16	27.1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9	15.3
	개성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2	3.4
선호하지 않는 이유	피부자극	14	23.7
	세탁 후 형태 변형	14	23.7
	보풀발생	12	20.3
	울이 늘어남(긁힘)	12	20.3
	정전기 발생	6	10.2
	색이 변함	1	1.7

Table 3. 피부질환자가 요구하는 의복성능 요인분석

의복성능요인	형용사	요인 부하 값	고유 값	변량(%)	신뢰도
요인 1 건강·위생성	피부 유·수분 유지가 되는	.75	4.17	21.2	.77
	통기성이 좋은	.72			
	기온에 적합한	.59			
	자외선 차단이 되는	.63			
요인 2 실용·관리성	구김이 가지 않는	.85	2.02	13.1	.73
	형태변형 방지가 되는	.75			
	땀 흡수가 잘 되는	.68			
요인 3 피부차단성	피부결점을 감추는	.75	1.51	13.1	.57
	물세탁 가능한	.72			
요인 4 외관성	몸에 잘 맞는	.71	1.38	12.4	.53
	체형 결점 보완이 되는	.71			
요인 5 피부접촉성	피부 자극이 없는	.79	1.02	12.2	.64
	피부접촉감이 좋은	.74			
	움직이기 편한	.70			

Table 4.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요구 성능의 중요성

요구성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몸에 잘 맞는			12 (20.3)	33 (55.9)	14 (23.7)	4.03	.67
통기성이 좋은			13 (22)	36 (61.0)	10 (16.9)	3.95	.63
기온에 적합한			17 (28.8)	34 (57.6)	8 (13.6)	3.85	.64
물세탁이 가능한		5 (8.5)	20 (33.9)	25 (42.4)	9 (15.3)	3.64	.85
피부 결점을 감추는		5 (8.5)	14 (23.7)	27 (45.8)	13 (22.0)	3.81	.88
자외선 차단이 되는		4 (6.8)	17 (28.8)	27 (45.8)	11 (18.6)	3.76	.84
구김이 가지 않는	1 (1.7)	5 (8.5)	27 (45.8)	21 (35.6)	5 (8.5)	3.41	.83
땀 흡수가 잘 되는		2 (3.4)	9 (15.3)	39 (66.1)	9 (15.3)	3.93	.67
형태 변형 방지가 되는	2 (3.4)	1 (1.7)	18 (30.5)	28 (47.5)	10 (16.9)	3.73	.89
피부 접촉감이 좋은		1 (1.7)	6 (10.2)	24 (40.7)	28 (47.5)	4.34	.73
피부 유·수분 유지되는		4 (6.8)	13 (22.0)	30 (50.8)	12 (20.0)	3.85	.83
체형 결점 보완이 되는		3 (5.1)	13 (22.0)	26 (44.1)	17 (28.8)	3.97	.85
움직이기 편한			8 (13.6)	32 (54.2)	19 (32.2)	4.19	.66
피부 자극이 없는		1 (1.7)	6 (10.2)	22 (37.3)	30 (50.8)	4.37	.7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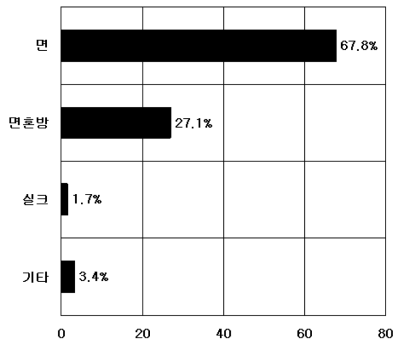


Fig. 2.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섬유조성 선호도(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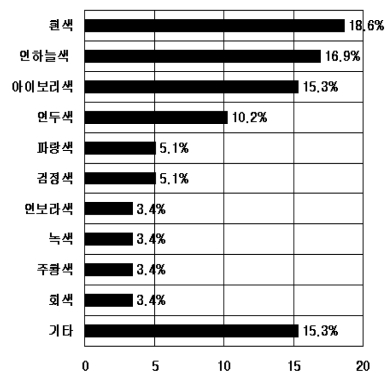


Fig. 3.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색상 선호도(N=59)

기는 정도, 손질의 간편함 등 '관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와는 달리, 피부질환자들은 의복성능 중 '피부접촉성' 및 '의관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선호도

Fig. 2는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S/S 니트웨어의 섬유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빈도분석 결과 면 (67.8%)을 매우 선호하고 면 혼방(27.1%)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병숙, 외(2002)의 연구에서 20~3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니트웨어의 소재로 면 100%, 모

100% 등 천연섬유를 선택하고 합성섬유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과 일치하였다.

Fig. 3은 피부질환자가 S/S 외출용 니트웨어에서 선호하는 색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S/S 외출용 니트웨어 색상에서는 흰색(18.6%), 연 하늘색(16.9%), 아이보리색(15.3%), 연두색(10.2%) 등 전반적으로 옅은 색상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다.

Table 5는 피부질환자가 S/S 니트웨어용으로 선호하는 문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선호하는 문양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어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선호하는 것을 나타냈다. 빈도분석 결과, '문양 없는 단색'의 선호도의 점수가 3.73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 문양' 3.19 점, '아가일 문양' 2.97점, '로고 문양' 2.73점, '꽃문양' 2.39점, '추상문양' 2.25점, '점 문양' 2.24점, '동물문양' 2.14점으로 나타나 '문양 없는 단색'과 '줄 문양'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하로 전체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문양 없는 단색'의 경우 '가장 선호 한다'와 '선호 한다'의 비율이 55.9%였으며 '줄무늬', '아가일 문양', '로고 문양', '꽃문양'은 보통으로 선호되며, '추상 문양', '점 문양', '동물 문양'은 '선호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S/S 니트웨어 소재는 문양이 없는 단색이고 줄 문양이 보통으로 선호되며 선호도가 낮은 문양은 '아가일 문양', '로고 문양', '꽃문양', '추상 문양', '점 문양', '동물 문양'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피부질환자가 외관이 눈에 띄고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보다 품위성과 단순성을 의복 선호 감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 경향은 홍병숙 외(2002)의 연구에서 20-30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니트 문양은 문양이 없거나 단순한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과 유사하게 피부질환자들도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하고 무난한 니트웨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편성조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편성조직 선호도 조사는 편성 조직의 사진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게 하였다. 편성조직에서는 평편(35.6%)을 선호하였고, 케이블편(16.9%)도 비교적 선호한 반면, 랙킹편, 피케편, 자카드편 등은 선호도가 낮은

Table 5.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문양 선호도 (N=59)

소재문양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 한다		가장 선호 한다		평균	표준편차
	N	%	N	%	N	%	N	%	N	%		
문양 없음	-	-	4	6.8	22	37.3	19	32.2	14	23.7	3.73	.91
줄 문양	1	1.7	15	25.4	18	30.5	22	37.3	3	5.1	3.19	.94
아가일 문양	4	6.8	17	28.8	19	32.2	15	25.4	4	6.8	2.97	1.05
로고 문양	4	6.8	22	37.3	22	37.3	8	13.6	3	5.1	2.73	.96
꽃문양	14	23.7	19	32.2	17	28.8	7	11.9	2	3.4	2.39	1.08
추상 문양	14	23.7	24	40.7	15	25.4	4	6.8	2	3.4	2.25	1.01
점 문양	11	18.6	28	47.5	16	27.1	3	5.1	1	1.7	2.24	.88
동물 문양	19	32.2	21	35.6	12	20.3	6	10.2	1	1.7	2.14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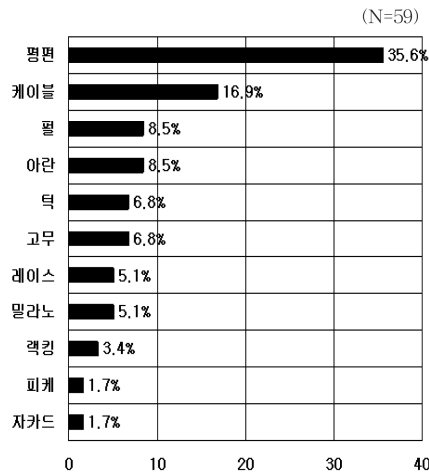


Fig. 4.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편성조직 선호도 (N=59)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편 조직이 얇고 부드러우며 유연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 Fig. 10은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S/S 니트웨어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한 결과이다. 실루엣은 ‘적당한 여유가 있으면서 몸에 피트 되는 형’(57.6%)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실루엣에 상관없이 유행하는 형’(22.0%), ‘몸에 완전 밀착되는 형’(16.9%)은 비교적 선호되는 편이었으나 ‘박스 형’(1.7%)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이 결과에서 피부질환자들은 피부에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체형을 고려하는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여밈 유형은 ‘앞트임 없는 형’(33.9%), ‘부분 앞트임’(23.7%)의 선호도가 높았고, ‘앞트임’(16.9%)과 ‘어깨 트임’(16.9%)도 비교적 선호하였고 ‘리본 형’(8.5%)의 선호도는 낮았다. 칼라 및 네크라인 유형은 ‘보트’(24.1%), ‘브이’(25.4%)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라운드’(15.3%), ‘오프 프론트’(10.2%)와 같이 목 부위가 노출되는 디자인도 일부 선호하나 ‘랩’(6.8%), ‘헨리’(3.4%), ‘크루’(3.4%), ‘지퍼달린 터틀’(3.4%), ‘반 폴라’(1.7%), ‘터틀’(1.7%)의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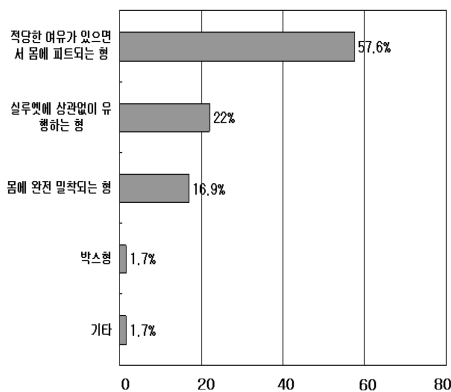


Fig. 5.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실루엣 선호도(N=59)

타났다. 소매길이에서는 ‘긴 소매’(44.1%)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반소매’(35.6%), ‘칠부 소매’(15.3%)도 일부 선호하나 ‘민소매’(5.1%)의 선호도는 낮았다. 이 결과에서 피부질환자는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S/S 외출용 니트웨어의 소매가 길수록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매 유형에서는 ‘라글란’이 52.5%, ‘셋인’이 47.5%로 비슷하게 선호하였다. 밑단 유형은 ‘고무단’(47.5%), ‘겹단’(30.5%)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열트임 있는 형’(11.9%)과 ‘홀단’(10.2%)도 일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질환이 있는 조사대상자가 젊은 층으로서 신체활동이 자유로우면서도 평범하고 무난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 Fig. 14는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S/S 니트웨어 상표라벨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상표라벨 크기가 ‘작은 크기’(가로×세로 3x2 cm정도)를 66.1%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표라벨 없음’도 20.3%로 비교적 선호하였고 ‘큰 크기’(가로×세로 5x3 cm정도)가 13.6%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피부질환자는 상표라벨의 크기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표라벨 위치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왼쪽 가슴’부분이 39.9%로 많았으며, ‘뒷 목집’부분(18.6%), ‘열선 외측’(16.9%), ‘열선’(15.3%)도 비교적 선호하였고 ‘열선 내측’(6.8%), ‘칼라부분’(1.7%)의 선호도는 낮게 나타나 브랜드명을 잘 알아 볼 수 있는 위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표라벨 유형으로는 ‘끝이 둥근 모양’(44.1%)을 선호하고 ‘직사각형’(32.2%)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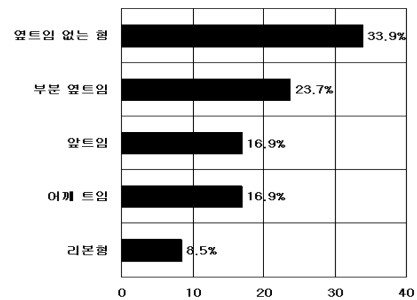


Fig. 6.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여밈 유형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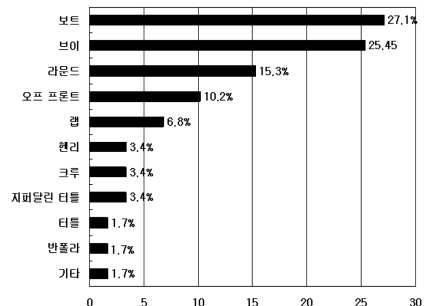


Fig. 7.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칼라 유형 선호도 (N=59)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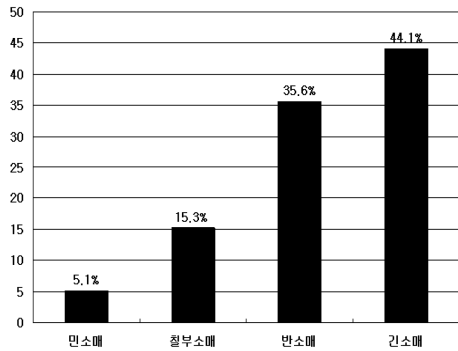


Fig. 8.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소매길이 선호도(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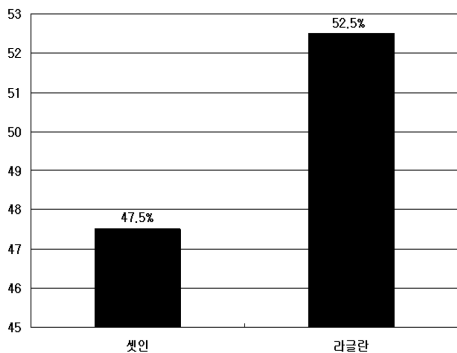


Fig. 9.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소매 유형 선호도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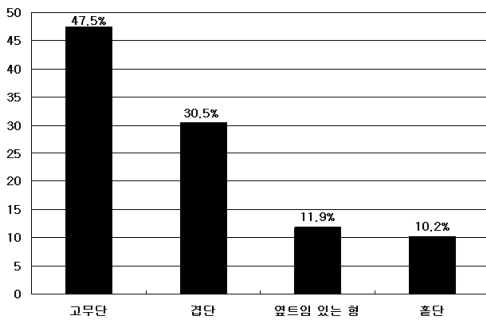


Fig. 10.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밧단 유형 선호 (N=59)

적 선호하였으며, ‘정사각형’(13.6%)의 선호도는 낮았다. 혼용을 표시위치로는 ‘옆선 내측’(71.2%)을 선호하고, ‘옆선 외측’(20.3%)도 비교적 선호하였고, ‘뒷 목점’(6.8%), ‘옆선’(1.7%)은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어 피부질환자는 목뒤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옆선을 혼용을 표시위치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3.5. 피부질환자의 니트웨어 선호감성

Table 6은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니트웨어 선호감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감성 형용어휘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5개

의 요인은 총 분산의 64.0%를 설명한다.

요인 1은 ‘폼위 있는’, ‘정숙한’, ‘현대적인’, ‘값비싸 보이는’, ‘짧어 보이는’, ‘깔끔한’, ‘클래식한’ ‘간결한’ ‘유행을 고려한’ 등의 9개로 구성되어 ‘폼위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26.9% 이다. 요인 2는 ‘단순한’, ‘평범한’, ‘단정한’등의 3개로 구성되어 ‘단순성’으로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2.5% 이다. 요인 3은 ‘여성스러운’, ‘세련된’, ‘우아한’, ‘날씬해 보이는’ 등의 4개로 구성되어 ‘여성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10.3%이다. 요인 4는 ‘눈에 띄는’, ‘대담한’ 등의 2개로 ‘현시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7.3% 이다. 요인 5는 ‘활동적인’, ‘캐주얼한’등의 2개로 ‘활동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의 7.1% 이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 나온 5개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70 ~ .83으로 나타났다.

3.6. 피부질환자의 성별 S/S 니트웨어 선호도의 차이

3.6.1. 피부질환자의 성별 니트웨어의 요구 성능의 차이

Table 7은 피부질환자의 성별 S/S 니트웨어의 요구성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한 결과이다. 니트웨어의 요구성능 중 ‘체형결점보완이 되는’의 요구 성능에서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외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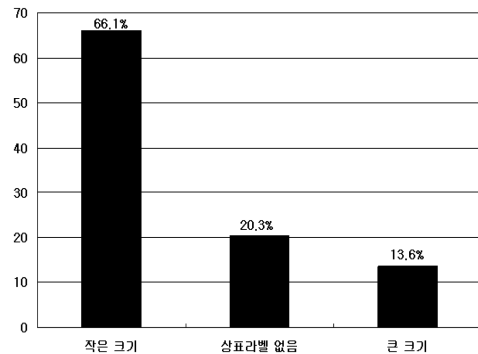


Fig. 11.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상표라벨 크기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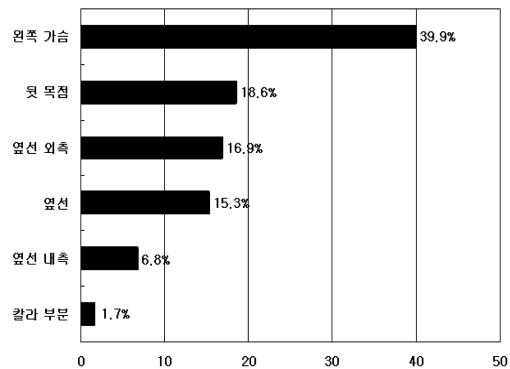


Fig. 12.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상표라벨 위치 선호도 (N=59)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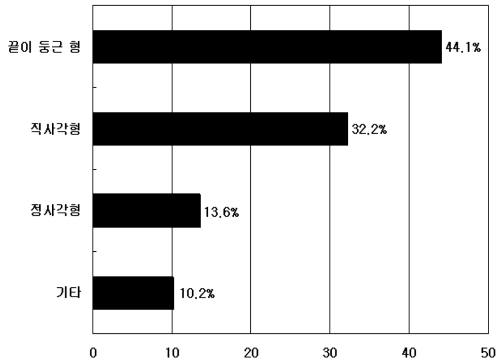


Fig. 13.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상표라벨 유형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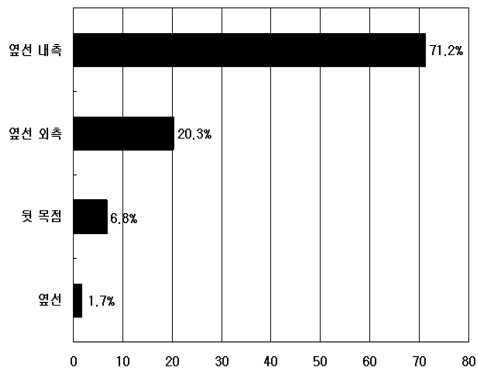


Fig. 14.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혼용 표시위치 선호도 (N=59)

3.6.2. 피부질환자의 성별 니트웨어의 선호감성 요인의 차이

Table 8은 피부질환자의 성별 니트웨어에 대한 선호감성 요인의 차이를 t-test 한 결과이다. ‘여성성’에서만 유의한 차이 (p<.001)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 피부질환자가 남성 피부질환자보다 여성스럽고 세련되고 우아하며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니트웨어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3.6.3. 피부질환자의 성별에 따른 니트웨어의 여밈 유형 선호도의 차이

Fig. 15는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여밈 유형 선호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여밈 선호도를 살펴보면, ‘앞트임 없는 것’을 전체 조사대상자의 33.9%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분 앞트임’(23.7%), ‘앞트임’(16.9%), ‘어깨 트임’(16.9%)도 비교적 선호하는 반면, ‘리본 형’(8.5%)의 선호도는 낮았다. ‘앞트임 없는 것’은 남·여 모두 선호하였고, ‘부분 앞트임’은 남성(42.9%)이 여성(13.2%)보다 더 선호하였고, ‘어깨 트임’은 여성(23.7%)이 남성(4.8%)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7.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S/S 외출용 니트웨어 선호도의 차이

3.7.1.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의복 요구 성능 요인의 차이

Table 9는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의복성능 요인의 차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차단성’(p<.05) 요인과 ‘외관성’(p<.05)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Table 6.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니트웨어 선호감성 요인분석

감성요인	형용사	요인 부하 값	고유 값	변량(%)	신뢰도
요인 1 품위성	품위 있는	.76	5.38	26.9	.83
	정숙한	.73			
	현대적인	.70			
	값비싸 보이는	.66			
	젊어 보이는	.64			
	깔끔한	.60			
	클래식한	.53			
	간결한	.49			
유행을 고려한	.40				
요인 2 단순성	단순한	.75	2.51	12.5	.70
	평범한	.75			
	단정한	.74			
요인 3 여성성	여성스러운	.81	2.10	10.3	.73
	세련된	.73			
	우아한	.65			
	날씬해 보이는	.57			
요인 4 현시성	눈에 띄는	.91	1.45	7.3	.82
	대담한	.82			
요인 5 활동성	활동적인	.86	1.39	7.1	.72
	캐주얼한	.73			

Table 7. 피부질환자의 성별 니트웨어 요구성능의 차이

요구성능	남	여	T값	평균(표준편차)
몸에 잘 맞는	3.90(.70)	4.11(.65)	-1.11	
통기성이 좋은	3.81(.68)	4.03(.59)	-1.28	
기온에 적합한	3.71(.64)	3.92(.63)	-1.20	
물세탁 가능한	3.38(.81)	3.79(.85)	-1.81	
피부 결점을 감추는	3.95(.87)	3.74(.89)	.90	
자외선 차단이 되는	3.76(.77)	3.76(.88)	-.01	
구김이 가지 않는	3.19(.93)	3.53(.76)	-1.50	
땀 흡수가 되는	3.86(.73)	3.97(.64)	-.64	
형태 변형 방지가 되는	3.52(.93)	3.84(.86)	-1.33	
피부 접촉감이 좋은	4.16(.83)	4.47(.65)	-1.94	
피부 유·수분 유지가 되는	3.76(.89)	3.89(.80)	-.59	
체형 결점 보완이 되는	3.57(.98)	4.18(.69)	-2.80*	
움직이기 편한	4.00(.78)	4.29(.57)	1.65	
피부 자극 없는	4.29(.90)	4.42(.64)	-.67	

*p<.05

Table 8 . 피부질환자의 성별 니트웨어 선호감성 요인의 차이

성별	폼위성	단순성	여성성	현시성	활동성	평균(표준편차)
남(n=21)	-.02(.99)	.25(.86)	-.71(1.08)	.13(.96)	.08(1.36)	
여(n=38)	0.1(1.02)	-.14(1.05)	.39(.70)	-.70(1.03)	-.05(.75)	
T값	-.12	1.45	-4.74***	.73	.47	

***p<.001

타나 피부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피부결점을 감추는’의 의복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부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몸에 잘 맞고 체형 결점이 보완되는 의복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7.2. 피부질환 피부건강에 따른 여밈 유형 선호도의 차이

Fig. 16은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S/S 니트웨어 여밈 유형 선호도의 차이를 빈도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질환자의 피부상태별 S/S 니트웨어 여밈 유형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앞트임 없는 것’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피부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질환자의 36.7%가 ‘앞트임이 없는 것’을 선호하였고 ‘앞트임’(30.0%)과 ‘부분 앞트임’(20.0%), ‘어깨 트임’(10%)도 비교적 선호하여 다양한 여밈 모양을 선호하였다. 피부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질환자의 경우 ‘어깨 트임’(38.9%)을 선호하였으며 ‘앞트임 없는 것’(22.2%), ‘부분 앞트임’(22.2%), ‘리본 형’(16.7%)도 선호하였으나 ‘앞트임’은 전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앞트임 없는 것’(45.5%)과 ‘부분 앞트임’(36.4%)을 선호하는 반면, ‘앞트임’(9.1%)과 ‘리본 형’(9.1%)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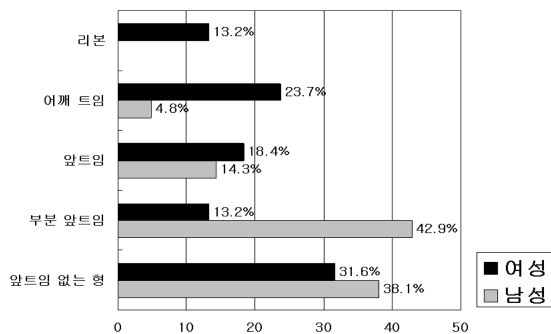


Fig. 15. 피부질환자의 성별 S/S 니트웨어 여밈유형 선호도 차이 (N=59)

3.7.3.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밑단 유형 선호도의 차이

Fig. 17은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S/S 니트웨어 밑단 유형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질환자는 ‘고무단’(2.0%)을 선호하였고 ‘겹단’(11.9%)과 ‘열트임 있는 것’(20.0%), ‘홀단’(13.3%)도 선호하였다. 피부건강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질환자의 경우 ‘겹단’(55.6%)을 선호하였으며 ‘고무단’(27.8%), ‘홀단’(11.1%)도 비교적 선호하였으나 ‘열트임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90.0%가 ‘고무단’을 선호하였고 ‘겹단’(9.1%)도 약간 선호하였으나 ‘열트임

Table 9.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의복성능 요인의 차이

피부건강	위생성	실용관리성	피부차단성	외관성	피부접촉성
좋지않음(n=30)	0.6(1.15) A	-.19(1.11) A	.11(.86) A	-.28(.95) B	-.02(1.11) A
보통(n=18)	-.17(.98) A	.13(.89) A	.26(1.10) A	.06(.93) AB	-.06(1.01) A
좋음(n=11)	.11(0.50) A	.31(.79) A	-.72(.93) B	.66(.97) A	.18(.68) A
F값	.40	1.21	3.95*	4.00*	.22

평균(표준편차)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같은 문자는 사후분석 결과 평균값 유의한 차이 없음.(A>B) *p<.05

있는 것'과 '홀단'은 전혀 선호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부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고무단'을 선호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겹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8. 피부질환자의 피부질환 종류별 S/S 니트웨어 선호도의 차이

3.8.1. 피부질환 종류별 의복 요구성능의 요인의 차이

Table 10은 피부질환 종류별 피부질환자가 요구하는 의복성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피부질환 종류별 피부질환자가 요구하는 의복성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요인 2(p<.05)의 '실용·관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 분석 결과,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질환

자에 비교하여 기미·주근깨 피부질환자는 '실용·관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8.2. 피부질환 종류별 니트웨어의 요구성능의 차이

Table 11은 피부질환 종류별 S/S 니트웨어의 요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피부질환 종류별 피부질환자가 요구하는 니트웨어 요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움직이기 편한'(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S/S 니트웨어 요구 성능에서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질환자보다 기미·주근깨 피부질환자가 '움직이기 편한'의 니트웨어 요구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토피 피부질환자는 다른 피부질환자에 비해 '피부자극이 없는' 성능에 대한 점수적 평균값은 높지만 통계적 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8.3. 피부질환 종류별 니트웨어 선호감성 요인의 차이

Table 12는 피부질환 종류별 니트웨어 선호감성 요인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요인1의 '폼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미·주근깨 피부질환자와 여드름 피부질환자와 비교하여 아토피 피부질환자용 S/S 외출용 니트웨어는 값싸게 보이면서도 젊어 보이는 등의 현대적이고 클래식한 품위 있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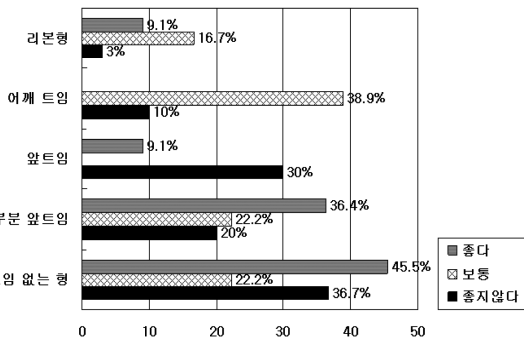


Fig. 16.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S/S 니트웨어 피부질환자의 피부건강에 따른 S/S 니트 여밈유형 선호도의 차이(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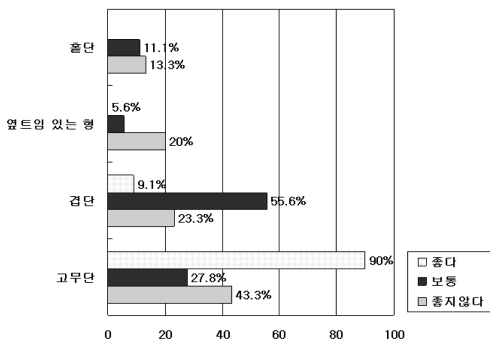


Fig. 17. 밑단유형 선호도의 차이 (N=59)

4. 결 론

본 연구는 피부환자가 요구하는 의복의 성능과 감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부환자가 선호하는 봄·여름용 니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부환자에게 더욱 쾌적한 니트웨어 제품을 선택하거나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1) 피부질환 조사대상자는 '아토피 피부', '여드름', '기미·주근깨'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여성은 치료와 미용을 위해서 클리닉을 찾으며 피부 관리법으로 청결과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 소재의 선택 및 목욕, 환경 개선을 통해 피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피부질환자가 니트웨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이고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부자극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와 피부질환자를 위한 니트웨어 개발 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소재의 사용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0. 피부질환 종류별 피부질환자가 요구하는 의복성능 요인의 차이

피부질환 종류	평균(표준편차)				
	위생성	실용·관리성	피부 차단성	외관성	피부접촉성
기미·주근깨	-0.13(.97) A	.45(.76) A	-.30(1.27) A	.35(.87) A	.11(.82) A
여드름	-.36(.93) A	-.21(.82) A	-.24(.88) A	.17(1.30) A	.14(1.40) A
아토피성 피부질환	.25(1.07) A	-.26(1.02) AB	.32(.86) A	-.21(.93) A	-.13(.90) A
F값	1.34	3.60*	2.20	1.10	.30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A>B) 같은 문자는 사후분석 결과 평균 값 유의한 차이 없음. (*p<.05)

3) 피부질환자의 의복의 요구 성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위생성’, ‘실용·관리성’, ‘피부차단성’, ‘외관성’, ‘피부접촉성’의 5개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피부건강별로 ‘피부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피부결점을 감추는’ 의복성능을, ‘피부상태가 좋다’고 응답하는 집단에는 ‘몸에 잘 맞는다’와 ‘체형 결점이 보완되는’ 의복성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 또한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질환자에 비교하여 기미·주근깨 피부질환자는 ‘실용·관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의복 요구 성능 중 ‘피부 자극이 없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피부접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니트웨어의 특성은, 흰색, 연 하늘

Table 11. 피부질환 종류별 S/S 니트웨어의 요구성능의 차이

요구성능	평균(표준편차)				
	기미·주근깨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F값	
몸에 잘 맞는다	4.17(.58) A	4.15(.80) A	3.93(.65) A	.77	
통기성이 좋은	3.83(.72) A	3.77(.44) A	4.10(.67) A	1.56	
기온에 적합한	4.00(.74) A	3.62(.65) A	3.90(.62) A	1.23	
물세탁 가능한	3.75(.97) A	3.31(.63) A	3.72(.88) A	1.23	
피부 결점을 감추는	3.50(1.00) A	3.69(1.03) A	4.10(.67) A	2.54	
자외선 차단이 되는	3.75(.97) A	3.62(.77) A	3.93(.80) A	.70	
구김이 가지 않는	3.67(.78) A	3.23(.73) A	3.28(.84) A	1.20	
땀 흡수가 되는	3.92(.70) A	3.77(.44) A	3.97(.78) A	.37	
형태 변형 방지가 되는	4.17(.58) A	3.62(.77) AB	3.48(.99) B	2.70	
피부 접촉감이 좋은	4.42(.052) A	4.23(.93) A	4.31(.71) A	.20	
피부 유수분 유지가 되는	3.83(.84) A	3.54(.97) A	4.03(.79) A	1.59	
체형 결점 보완이 되는	4.17(.72) A	3.92(1.04) A	3.90(.82) A	.44	
움직이기 편한	4.50(.52) A	4.46(.66) A	3.97(.68) B	4.29*	
피부 자극 없는	4.08(.67) A	4.23(.93) A	4.55(.63) A	2.12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같은 문자는 사후분석 결과 평균 값 유의한 차이 없음. (A>B) (*p<.05)

Table 12. 피부질환 종류별 피부질환자의 S/S 니트웨어 선호감성 요인의 차이

피부질환 종류	평균(표준편차)				
	폼위성	단순성	여성성	젊음	활동성
기미·주근깨	-.63(1.15) B	-.44(1.26) A	.48(.74) A	-.18(1.20) A	.20(.74) A
여드름	.06(.94) AB	.07(1.18) A	-.30(.86) B	.22(.80) A	.17(1.25) A
아토피성 피부염	.26(.91) A	.26(.73) A	-.09(1.13) AB	-.04(1.03) A	-.24(.93) A
F값	3.62*	2.16	2.11	.49	1.17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같은 문자는 사후분석 결과 평균값 유의한 차이가 없음. (A>B) (*p<.05)

색, 아리보리 등 옅은 색의 평편, 케이블편이다. 이러한 니트웨어 소재 특성은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품위 있으면서 단순해 보이는 감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없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은 대부분이 면을, 여성은 면뿐만 아니라 면 혼방도 사용 가능하다. 여밈 유형에서 ‘앞트임 없는 것’은 남·여 모두, ‘부분 앞트임’은 남성, ‘어깨 트임’은 여성용에 활용할 수 있다. 피부상태가 좋지 않으면 ‘앞트임 없는 것’으로 피부를 감추도록 하며, 보통인 경우 ‘어깨 트임’으로 하여 니트웨어의 착탈 시 피부 자극을 경감하며, 비교적 좋은 경우 ‘앞트임 없는 것’ 또는 ‘부분 앞트임’으로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케어라벨은 ‘옆선 내추’과 ‘옆선 외추’ 등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5) 피부질환자가 선호하는 니트웨어의 감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품위성’, ‘단순성’, ‘여성성’, ‘현시성’, ‘활동성’의 5개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여성 피부질환자용 니트웨어는 남성 피부질환자용 니트웨어보다 여성스럽고 세련되고 우아하며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니트웨어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피부질환자용 니트웨어가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부질환자에게 더욱 쾌적한 니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숫자가 적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향후 다양한 연령대의 조사대상자 수를 포함한 연구와 함께 니트웨어 시제품의 착용 효과 또는 온열·생리 실험이 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논문

공진희, 권영아. (2007). 아토피 피부염환자의 봄, 여름용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감 연구. *복식*, 57(5), 58-71.

김경희. (1994). *니트웨어의 소비자성향실태 및 업체에 관한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2003).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관점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대한피부과학회지*, 41(6), 687-689.

김홍식. (1997). *소아 아토피 피부염환자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봉균. (2004).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옥희, 김경희. (2002). 혜택세분화에 따른 20대 여성의 니트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6), 601-611.

이화륜. (2004). *의류제품의 소재 특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수희. (2005). *가을/겨울용 골프 니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철호, 고우석, 김방순. (1999). 서울시 노원구와 그 인접 지역의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1997~1999). *대한피부과학회지*, 20(1), 249-254.

홍병숙, 이은지, 김계연. (2002). 20~30대 여성의 니트웨어 구매행동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7), 1055-1065.

홍성호, 이은소, 윤경한. (2003).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 피부 질환의 통계적 고찰(1995~2001). *대한피부과학회지*, 41(6), 728-739.

(2008년 2월 12일 접수/ 2008년 10월 27일 1차 수정/2008년 11월 17일 게재 확정)